

IV. 현대산문 영역

1.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성석제)	2
2. 도시와 유령(유진오)	
3. 김 강사와 T교수(유진오)	
4. 고향(이기영)	6
5. 미스터 방(채만식)	8
6. 임종(염상섭)	
7. 모래톱 이야기(김정한)	10
8. 동행(전상국)	14
9. 사막을 건너는 법(서영은)	
10. 우리 동네 이씨(이문구)	
11. 목마른 뿌리(김소진)	
12. 원숭이는 없다(윤후명)	
13. 동행(임철우)	
14. 변방에 우짖는 새(현기영)	
15. 해산바가지(박완서)	
16. 칼의 노래(김훈)	
17. 탈출기(최서해)	
18. 아우를 위하여(황석영)	16
19. 정읍사(문순태)	
20. 누이와 늑대(한승원)	
21. 완장(윤홍길)	20
22. 만무방(김유정)	24
23. 산돼지(김우진)	
24. 꼭두각시놀음(작자 미상)	
25. 봉산탈춤(작자 미상)	26
26. 호신술(송영)	28
27. 소(유치진)	29
28. 8월의 크리스마스(오승욱 외)	38
29. 결혼(이강백)	39
30. 이재수의 난(박광수 외)	
31.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신영복)	
32. 측상락(윤오영)	

[33~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마을 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만그인지 만그인지 그 바보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러 가고 이기 뭐라. 스무 바리나 되는 소가 한꺼분에 밥 굶는 기 중요한가, 바보자식 하나가 어데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기 중요한가, 씨그랄.”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龍王祭)에 축(祝)을 초(草)하는 황계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질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마 펠시 연유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기 어디 있어.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만그이, 아이다, 만그이가 여게서 나서 사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라.”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간다 겠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다.”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열열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 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궐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궐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 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도 모었다는 기 백 명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만그이는 돼지고기 반근만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라칸께.”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 말을 이었다. 민 씨는 이장이 궐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궐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궐기대회 꼭 나오라 겠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촉구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기라. 백택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

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틀 몰았다.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중략)

전날 밤, 분명 꿈은 아니었다, 민 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농사꾼은 빛을 지마 안된다 카이.”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에 텅 빈 우사(牛舍), 마른똥만 뒹구는 축사, 잡초만 무성한 비닐하우스를 보라. 농어민 복지, 소득향상, 생활개선? 다 좋다. 그걸 제 돈으로 해야 한다. 제 돈으로 하지 않으면 그건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 처마의 고드름처럼 자꾸 커진다.)

“기계화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 김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지뵈야 그 빛 갚느라고 정신했다.”

(한 집에서 일 년에 한 번 쓰는 이앙기를 들여놓으면 그게 일 년 내내 돌아가던가.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짓던 건 옛날 말이다. ㉡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도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어차피 빛으로 사는데 사기가 어려울까.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免稅油)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다 돌리기는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두 대데 면세유는 한 대분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두 대씩 필요할까. 한 사람이 한꺼번에 두 대를 모는 것도 아닌 데.)

“그런 기 다 싹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빛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따라서 제대로 된 농사꾼이 점점 없어진다.)

“지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치겠다. ㉢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지만 좋은 열매를 뺏으마 그 마이가?”

(모두 빛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든다. 정책자금, 선심자금, 농어촌구조 개선자금, 주택 개량자금, 무슨무슨 자금 해서 빌려줄 때는 ㉣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빛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내가 왜 빛을 안 졌نيا고. 아무도 나한테 빛 준다고 안

캐.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 서라는 이야기도 안했다. ㉠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지민서 안 망하고 백 년을 살 끼라.”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한 향아리밖에 안되는 그의 뼈를 담고 돌아왔다.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싣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33.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을 회관에 모인 동네 사람들 중에 황만근의 소재를 아는 사람은 없었다.
- ② 민 씨는 황만근의 아들로부터 그의 실종 소식을 듣고 동네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 ③ 황동수는 황만근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그가 외박을 한 적이 없다는 황재석 씨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
- ④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이 술 때문이라고 짐작하며 그의 실종으로 인해 모이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 ⑤ 황재석 씨는 황만근의 평소 행적을 토대로 그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 ~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는 공동체 의식이 무너져 가는 농촌을 배경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농민 ‘황만근’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작가는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과 그 안에서 우직하게 살아가는 농민의 삶을 대비하여 보여 줌으로써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① ㉠: 기계화 영농이 농민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빚을 지게 하는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 서로 도와가며 농사짓던 농촌의 공동체 의식이 무너진 현실을 볼 수 있군.
- ③ ㉢: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군.
- ④ ㉣: 기관들이 지원하는 각종 자금이 오히려 농가를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군.
- ⑤ ㉣: 자신의 방식대로 소신껏 농사를 짓겠다는 인물의 우직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35. [꺠기대회]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성품을 드러내며 비극적 사건을 유발한다.
- ② 이장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한다.
- ③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어 민 씨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암시한다.
- ④ 대답하던 마을 사람들이 화해하여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 ⑤ 민 씨로 하여금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깨닫게 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한다.

36.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황만근의 말을 민 씨의 시선을 통해 풀어서 제시하고 있다.
- ② 황만근의 말을 인용해 민 씨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황만근의 삶을 민 씨의 반성을 통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④ 황만근의 처지가 민 씨의 말에 의해 과거와 대비되어 강조되고 있다.
- ⑤ 황만근의 말에 민 씨의 말을 덧붙여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3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에는 울루루(Uluru)라고 불리는 세계 최대의 단일 바위가 있다. 울루루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관광객들은 원하면 이 바위에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 등반로 입구에 가면 다음과 같은 팻말들이 붙어 있다.

울루루에 올라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오면 올라가지 마십시오. 올라가다가 떨어지거나 미끄러져서 죽거나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울루루 국립공원관리공단

당신들은 이 바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바위가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루루가 보호되고 존경받기를 바라며 올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울루루 원주민

- ① 울루루에 가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② 울루루에 관광객들이 등반하지 않기를 바라는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③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울루루에 도착한 원주민에게 울루루는 ‘장소’일 것이다.
- ④ 울루루에 올라가다가 떨어져 다친 기억이 남은 관광객에게 울루루는 ‘공간’일 것이다.
- ⑤ 자연 현상을 이유로 울루루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는 울루루가 ‘장소’일 것이다.

38. <보기>에서 ㉠이 드러난 사례가 아닌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 보 기 —

㉠ ○○시는 △△동을 한옥 보존 지구로 지정하였다.
 ㉡ ○○시는 간판의 모양과 규격, 디자인을 통일시켰다.
 ㉢ ○○시는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시에 통합되었다.
 ㉣ ○○시는 특정 거리에 있는 옛 건물의 외관과 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현대식으로 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39. 문맥상 ㉠~㉣를 바꿔 쓸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헤아리고 ② ㉡: 이루어진 ③ ㉢: 붙인다
- ④ ㉣: 맞서는 ⑤ ㉣: 가득찬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민씨는 이장이 켈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 밤에 내일 켈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보고 농민 켈기대회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다.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카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농민 총 켈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카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데서 술 처먹고 주질러앉았을 기라. 백 텃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이 시간도 마이 걸릴 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기 내 말이라? 투쟁방침이 그렇다 카이.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만그이가 그걸 하루이를 몰았나. 남들이 못 몬다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 이장님부터 술선수법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잖습니까.”

“㉢ 내사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올메나 바쁜 사람인데 경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고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 대회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이고 온 사람도 밧 없더마. 소리마 밧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페이맨구로 쟁쟁 달리는데 받치만 우애라고. 다른 동네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쟈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잖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 다면서요. 허허,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해싸. 누구맨구로 반동기리가 났나.”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다.

“㉣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이니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구요.”

“이 자숙이 뉘 앞에서 눈까리를 똑바로 뜨고 소리를 뽁뽁 질러썰노. ㉤ 도사에서 쫓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했시모 앞전하게 남작 앞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키줄까 말까 한데, 뭐라꼬? 내가 만그이 이미나, 애비나. 나이 오십 다 된 기 어테를 가든 동 오든동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사리 끌고 따라다니냐?”

[중략 부분 줄거리 -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 한다. 유복자로 여덟 달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구관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음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끔벅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그래서 우리 동네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전원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강운기를 깨끗이 손질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소 앞까지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기행동지침이라. 그러가이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강운기로 길기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이주는 거라.”

“경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짓는 사람이 강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랄. 그랜제 민씨는 농사짓는 기 아이라. 비니루하우스 안에 꽃 밭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 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소*까지는 강운기를 끌고 가든동 버스를 타고 가든동 하고, 그 답에는 강운기를 같이 타마 되지, 까잇거.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이민서 왜 자꾸 농민궐기대회에 나갈라꼬 캐짜.”

“아아,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라마 우리를 다 합치가이고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러 다니는 사람이 두셋 되었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

* 민소 : 면소, 면사무소의 사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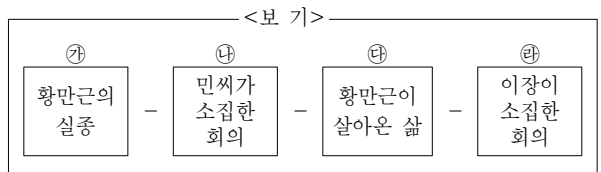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해학성을 높이고 있다.
- ② 극적인 반전을 통해 작품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 ③ 구어체 사투리를 구사하여 작품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섬세한 인물 묘사를 통해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 해 입체감을 주고 있다.

4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② ㉡ :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다.
- ③ ㉢ :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다.
- ④ ㉣ :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다.
- ⑤ ㉣ : ‘이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고 하고 있다.

42. 위 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시간상으로 ㉢과 ㉣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 ② ㉡와 ㉣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 ③ ㉡와 ㉣을 통해 ㉠의 정황을 알 수 있다.
- ④ ㉡에 요약된 내용이 ㉢과 ㉣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⑤ ㉣을 개최한 이유는 ㉢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4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은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무릅쓰고 경운기를 타고 농민궐기대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민씨는 궐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된다 카이.” / “기계화영농 카터이 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밋이나 되나. 강운기, 트랙터, 콤팩트, 이앙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거라. 농사지빠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 없다.” / “그런 기 다 쌀 값에 언차진다. 언차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살기 간당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카는데 둘 다 안 했으마 좋겠다.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멧덩구리로 만든다.”

농민으로서 진솔한 삶을 살아 온 황만근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 ①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이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 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한다.
- ④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다.
- ⑤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동경 유학생이던 김희준은 학자금 부족으로 학업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고향은 예전과 달리 황폐해져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희준은 청년회에서 야학을 하며 농민들을 계몽해 보려 하지만, 청년회 회원들은 농민들을 계몽할 의지가 없다.

[A] 농촌은 오륙 년 전보다도 더욱 황폐해지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는 고향에 돌아온 지가 벌써 일 년이 되어간다. 그동안에 자기는 무엇을 했는가? 하긴 청년회 일을 안 보지 않았다. 그는 그곳 청년회의 집행위원이 되었다. 그러나 청년회란 무엇 하는 게냐? 그는 처음 나와서 읍내 있는 청년회를 가보고 놀랐다. 그것은 청년회인지 오락 기관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든지 청년들이 모이긴 모였다. 한편에서는 바둑을 두고 한편에서는 **장기**를 두고 그리고 마당에서는 한 패가 **테니스**를 치고 있다. 그들은 내기를 하고 있었다. 승부를 결단하자.

“가세.”
하고 그들은 일제히 일어났다.

①‘어디로 가자는가?’

그때 희준이는 덩달하였다. 결국 따라가 본즉, 거기는 음식점이었다. 이런 주식업에 비교하면 그래도 그들이 노동 야학을 시작한 것만은 장한 일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유명무실로 선생들의 태만한 행동은 **학생들의 열성**을 꺼지게 했다. 그때보다는 청년회 꼴이 제법 쇠신된 모양이다. 그러나 ㉠희준의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도 그것은 비범법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도 유흥 기반에는 백 퍼센트의 열을 띠고 나선다. 그도 그럴 것은 — 그들은 대개 장사치들과 은행 회사원들의 증산 계급으로서 지식 정도도 중학 한 개를 딱딱히 마친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는 공연히 헛일을 하는 것 같았다. “그런 자식들과 무슨 일을 같이 한다고! 그 자식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들이야! 쥐꼬리는 송곳집으로나 쓰지 그 자식들은 거름도 못할 자식들이네 뉘.”
이런 말은 희준이보다도 그들끼리 서로 욕하는 말이었다. “이 고장이란 원체 할 수 없는 곳이지요. 팔도 모산지배*가 모여 사는 곳이라 모두 본데없이 자라나서 부랑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청년회가 있대야 그저 별제위명*이지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인간들이라요.”

희준이가 ○○일보사 지국장인 **장수철**을 찾아가서 고향에 돌아온 첫인사를 하고 갔을 때 복장을 근대식으로 차린 그는 가장 점잖게 지식적 어투로 이런 말을 했었다. 그는 그때 청년회 위원장이자면서 마치 남의 말을 하듯 하지 않던가. 마치 자기는 그들의 유(類)가 아니라는 것처럼!

(중략)

세 사람은 읍내로 가는 길을 나란히 떴었다. 돌자갈을 깔 한길 위로 단장을 끄는 소리가 희준이 귀에는 차차 멀리 울려왔다.

‘저런 작자들과 무슨 일을 한담!’

㉡스름달밤은 흰한 들판에 검푸른 장막을 드리웠다. 달빛 아래에는 초가집도 궁전과 같다.

원터 뒷산에 아득한 숲이 우중충하게 그늘진 밑으로 마을의 초가집들은 선경과 같이 은은히 안겨 있다.

조각달은 어느덧 서천에 기울어졌는데 딱따구리는 뒷산에서 울고 소쩍새는 동구 앞 느티나무 속에서 운다. 고요한 이 밤에 한 줄기 시냇물이 은파를 번득이며 들 가운데로 감돌아 흐르는데 큰 내의 여울물은 바다같이 흰하게 남쪽으로 트여 있다. “소쪽! 솟소쪽!.....”

㉢소쩍새는 처량하게 밤을 새워 울려는가!

홀로 가는 희준이는 적적한 들 가운데를 접어들며 마음속에 고독을 느꼈다. 그의 외로운 그림자가 눈독길 밑으로 따라온다. 넓은 들과 같이 마음속에도 공허를 가져왔다.

그는 동무들을 격려하며 일을 보다가도 가끔 이와 같은 적막을 느꼈다. 그런 때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함께 웃고 떠들어도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같이 의식의 간격**을 자아낸다.

‘이까짓 일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담!’

그는 자기의 생활이 무의미한 것 같았다. 인간이란 이렇게 하찮은 존재인가 하는 가소로운 생각도 난다.

그는 금시로 허무한 생각이 들어가서 만사가 무심해졌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 놈들은 모두 조그만 사육에 사로잡혀서 제 한 몸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말로나 글로는 강한 소리를 하지만 뱃속은 돼지같이 꿀꿀거리는 동물이야! 그것들과 같이 일을 해 보겠다는 나 자신부터 같은 위인이 아닐까?’

그러다가도 어떤 박자로 열이 올라서 다시 일에 열중할 때는 금시로 그는 어떤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을 하게 했다.

‘그렇다! 그들도 사람이 아닌가. 잘 지도하면 된다.’

마치 그는 숨 죽었던 모닥불이 한동안 검은 연기만 토하다가 별안간 불길을 확 내솟듯이 청년의 왕성한 ‘열정’이 모든 곤란을 무찌르고 일어났다.

그러나 지금 희준이는 **다시 고적**하였다. 그는 김빠진 맥주처럼 맥없이 들길을 걸어갔다.

‘그 사람들이 아마 읍전이 집에 가서 먹지!’

그는 즉시 그들을 쫓아가고 싶었다.

읍전이가 부역으로 들어가서 술상을 차리는지도 모른다. ㉣그는 **참으로 자기에게 추파를 보냈는가!** 그것은 몰라도 그는 불적마다 웃는 것이 인사였다.

- 이기영, 「고향」 -

* 덩달하다: 어리둥절하여 멍하다.
* 모산지배: 껍을 부러 이헤타산을 일삼는 무리.
* 별제위명: 겉으로는 어떤 일을 하는 체하고 속으로는 딴짓을 함.

38.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이 고조된다.
- ② 간접 인용을 통해 사건 전개에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외양 묘사를 통해 초점이 되는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⑤ 방언과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있다.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방향성을 잃고 현실에 절망한 회원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회준에 대한 회원들의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색채어를 사용하여 고향 마을의 긍정적 미래를 암시하고 있다.
- ④ ㉣: 인물의 허전하고 외로운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여 나타내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통해 '음전'에 대한 애정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향」은 일제 강점기 농촌의 다양한 문제점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주인공 '회준'이 속한 청년회에서도 드러난다. 즉 피폐한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회원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청년회를 여가 선용 모임 정도로 여기는 소시민성, 실천력 없이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있는 인물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농촌을 계몽하고자 했던 회준은 고독한 자아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회준을 통해 근대적 지식인의 고독과 내적 갈등을 엿볼 수 있다.

- ① 야학을 통한 농민 계몽보다 '장기'나 '테니스'에 열중하는 청년회의 모습에서 소시민성이 드러나는군.
- ② 회원들이 농촌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은 '학생들의 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군.
- ③ '장수철'과 같은 인물은 인텔리 근성에만 빠져 실천력을 상실한 지식인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회준이 '자기만은 산중에 홀로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느끼는 '의식의 간격'은 근대적 지식인이 느끼는 고독이겠군.
- ⑤ 회준이 '희망에 날뛰어서 낙관'하다가도 '다시 고적'해하는 것을 통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군.

[41~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딩아 돌하 당금(當今)에 계십니다
 선왕성대(先王聖代)*에 살고 싶습니다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바삭한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 되를 심습니다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그 밤이 움이 돌아 싹이 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옥(玉)으로 연(蓮)꽃을 새깁니다
 바위 위에 접(接)을 붙입니다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그 꽃이 삼동(三同)이 피어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무쇠로 철릭을 재단하여
 철사(鐵絲)로 주름을 박습니다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그 옷이 다 헐게 된다면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무쇠로 황소를 지어다가
 철수산(鐵樹山)*에 놓습니다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그 소가 철초(鐵草)를 먹어야
 유덕(有德)하신 님과 이별하겠습니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천 년을 외따로 살아간들
 민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작자 미상, 「정석가(鄭石歌)」 -

*선왕성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려 평화로운 시절.
 *삼동: 세 뭍음.
 *철릭: 무관이 입던 옷.
 *철수산: 쇠로 된 나무가 있는 산.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장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사용하여 친근감을 주고 있다.
-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점층적으로 고조되고 있다.